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을 온누리에

-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



불기 2564년 4월 30일(음력 4월 8일) 오전 10시 봉원사 대웅전에서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봉원사 사부대중 스님들의 참석하에 봉축 법요식이 원만히 봉행되었다. 법요식은 코로나 19 감염 예방과 신도들의 건강을 위해 봉원사 자체 행사로 치러졌다.

부처님께서 오신 날은 기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날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첫째, 우리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부처님이 도솔천에 계실 때 하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이제 삼계(三界)에 몸 받으려 함은 세간의 돈이나 재물, 쾌락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 인간계에 내려가는 뜻은 오직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자 함이며, 모든 고뇌에 빠진 중생을 어여빠 여기는 까닭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중생의 아버지인 것이지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둘째는, 중생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시려고 오셨다. 거짓에 속아 사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진실을 깨달아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지혜의 등불을 환히 밝히려고 오셨다.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부처님은 ‘하늘 위 하늘 아래 홀로 존귀한 존재’라고 하심으로써,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모두 ‘하늘 위 하늘 아래 홀로 존귀한 존재’요, ‘서로서로 의지하는 상관관계’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셨다. 개인마다 갖고 있는 자성(自性)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며, 가장 존귀한 것이 또한 부처님이니 부처님과 중생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참뜻을 밝혀 주셨다.

즉 중생이 자기 자신을 깨닫고 참된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바로 그것이 부처님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다.

셋째, 영원히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불성(佛性)을 깨달아 참된 삶과 진리의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 깨달음은 단순한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체험을 통하여 얻으신 것이다. 오로지 그 가르침을 믿고 그에 따라 실천 수행하여 깊고 참된 진리를 깨달으면 마침내 생사의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진, 불교 최고의 이상인 열반(涅槃)을 성취하는 것임을 알려주셨다.

부처님은 모든 이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고통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로 내려오셨다. 그분이 나신 곳은 호화찬란한 궁궐이 아니라 길가의 동산이다. 길에서 나서 길에서 살다 가신 우리 스승의 탄생은 그 자체가 우리 중생에 대한 끝없는 연민과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비록 봉축 법요식은 코로나19로 인해 규모가 축소되어 거행되었으나 그 어느 때보다도 봉원사 대웅전은 스님들과 신도들의 신심으로 가득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기원하는 주지 운봉 스님의 말씀을 끝으로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은 원만히 봉행되었다.

지견(智見) : 정지견(正智見) 또는 지견(知見)이라고도 함. 사실과 이치를 꿰뚫어 보는 안목. 의식(意識)에 의해 아는 것을 지(智), 안식(眼識)에 의해 아는 것을 견(見)이라 함. 그러나 선(禪)에서는 알음알이와 분별심을 뜻하는 경우도 있음

제32회 영산재 시연 잠정 연기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불교공연문화의 정수인 영산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의 쾌거를 이루며 명실공히 전 세계인의 소중한 자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지난 30여 년 간 영산재의 보존과 정기공연을 통해 영산재의 대중화와 예술적 성과를 올리며 발전을 주도해 온 영산재보존회(어장 구해 스님, 회장 운봉 스님)는 2020년 6월 6일(음력 윤 4월 15일) 토요일로 기획하였던

영산재 시연을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잠정 연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공고 독성도, 약사불회도, 산신도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독성은 왼손에는 석장을 잡고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있으며 왼쪽 무릎을 세우고 오른쪽 무릎은 바닥에 닿아 있어 매우 편안해 보이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화면 가득히 표현된 산수배경은 민화적인 요소가 많이 보인다. 향 오른쪽에 위부터 아래까지 매우 큰 소나무가 우거져 있고 향 왼쪽으로 소나무의 줄기가 이어져 마치 독성을 감싸 안은 듯한 표현이다. 곳곳에는 만개한 모란꽃이 그려져 있으며 한 쌍의 새는 마치 지저귀며 노래하듯 생동감이 넘친다. 화면 윗부분에는 상서로운 구름이 감돌고 있고 중간과 아랫부분은 기암괴석과 풀, 꽃들로 가득하다.

이와 같이 봉원사의 독성도는 다른 독성도와는 다르게 시립한 동자, 향로와 같은 기물 등은 묘사하지 않고 화면 중앙에 오직 독성만 표현하여 집중도가 있으며 매우 여유있는 공간 구성이 돋보인다. 색채는 적색, 녹색, 황색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밝고 경쾌한 색조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위쪽에 햇살이 지상으로 환하게 비치는 듯한 묘사는 매우 독특하며 소나무와 바위도 섬세하고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다. 흰 피부색과 빨간 입술이 돋보이는 독성은 머리카락과 눈썹, 수염 등도 흰색으로 표현하여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적색가사에 양녹색 승각기, 청색 군의를 입고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불화에 많이 쓰인 바림기법으로 옷주름 표현과 배경의 자연물 등을 표현하였으며 이 당시 유행했던 연화문, 연화당초문, 모란화문 등이 장식되었다. 또한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불화는 민화의 요소가 풍부해지는데, 특히 독성도나 산신도의 경우 민간과 밀접한 특성을 지닌 까닭이다. 이에 그림의 해학적인 변형과 길상의 상징 등은 독성도에 매우 친근하면서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수표현에 있어서도 청록산수나 십장생도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는 불교가 대중에게 다가가려는 노력과 민화의 영향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하겠다.

봉원사의 독성도는 19세기 말 ~ 20세기 초 다른 독성도보다 비교적 화면이 크다. 그리고 다른 인물상과 기물 등을 묘사하지 않고 오로지 독성만을 표현하여 집중도가 있는 화면구성과 기법 등이 능숙하며 완성도 있는 형태, 밝고 경쾌한 색채, 유려한 필선, 안정적인 구도, 아름다운 문양 등에서 질적으로 뛰어나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 20세기 초반에 서울·경기 지역에서 큰 활약을 보였던 창엽(瑯曄)*의 불화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그림의 형식과 양식이 후대로 전승되어 모본으로서의 역할도 지니고 있다. 다음 호에는 1894년(고종 31)에 조성된 봉원사 약사불회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 창엽(瑯曄) : 19세기 후반 서울·경기도 지역에서 활동한 화승이다. 당호는 한봉당(漢峰堂)이다. 스승인 금곡당(金谷堂) 영환(永煥)의 경우처럼 40년 이상을 화업에 몸담았으며 40여 점의 불화를 남겼다.

봉원사에서 문화재 지정 신청한 문화재가 서울시의 사전 조사와 서울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1차 심의를 통과, 2020년 5월 7일 서울시보(제3585호)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계획 공고되었다.
금번 서울시보에 공고된 봉원사의 유형문화재는 독성도(獨聖圖), 약사불회도(藥師佛會圖), 산신도(山神圖)의 3점이다. 또한 봉원사 칠성각도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로 지정 계획 공고되었다. 이번 호에는

3점의 문화재 중에서 봉원사 만월전(滿月殿)에 봉안되어 있던 독성도(獨聖圖)를 소개한다.
현재 봉원사의 독성도는 도난·훼손 방지를 위해 만월전이 아닌 봉원사 수장고에 보관중이다. 세로 99cm와 49.2cm 두 폭의 면을 감침질하여 서로 이어 붙였으며 전체크기는 세로 148.2, 가로 187.2cm로 화면은 세로 140cm, 가로 167cm의 비교적 큰 화면이다.
독성도는 홀로 수행하는 성자를 그린 불화로서 화면 중앙에 바닥이 평평하고 넓은 바위 위에 독성이 앉아

시주접수처 안내



봉원사 도량내에 새로운 기와불사 및 시주접수처가 마련되었습니다.
시주(施主)란 글자 그대로 '보시하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신도님들은 새로운 시주접수처에서 시주공덕을 쌓으시어 시련이 사라지고 더 많은 이익과 결실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 운영시간 : 오전 10시 - 12시, 오후 1시 - 3시
- 문 의 : 종무소 02-392-3007~8
- ※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접수처 시간을 위와 같이 조정, 운영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봉 원 사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신행활동

- 관음법회 봉행 -



봉원사 설법전 관음보살상

경자년 5월 16일(음력 4월 24일) 오전 10시, 봉원사 설법전에서 사부대중 스님들과 신도들의 참여하에 관음법회가 원만히 봉행되었다. 관음법회는 초하루법회와 더불어 매월 진행되는 일상법회로 음력 24일마다 거행된다. 신도들은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엄수, 법회에 참여하였다. 교무 법수 스님의 사회로 시작된 법회는 법회 전과 후로 철저한 방역 및 소독작업이 실시되었다.

관음법회에서는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의 대자대비(大慈大悲)와 위신력(威神力)으로 참다운 수행을 다짐하며, 자신이 지은 죄를 참회한다.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이 모두 해탈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세운 분으로, 중생들이 위협에 빠지면 구제하시는 보살이다. 관세음(觀世音)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중생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뜻이며, 이를 줄여서 관음(觀音)이라고도 말한다. 아미타부처님의 현신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 33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분으로 '모든 곳을 살피는 분'이나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졌다.

관세음보살의 공덕과 영험은 <관음경>, <법화경> 등 대중들 사이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불교 경전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왼손에 들고 있는 연꽃은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불성(佛性)을 나타내고, 그 꽃이 활짝 핀 것은 불성이 드러나서 성불했다는 것을 뜻한다.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봉오리는 번뇌 망상에 물들지 않고 장차 피어날 불성을 나타낸다. 『법화경(法華經)』 보문품에 나오는 '관음'은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이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지만 하면 즉시 그 음성을 관하고 해탈시켜 준다."라고 되어 있다.

관세음보살은 6관음이 일반적이며 그 중 성관음(聖觀音)이 본신이고 나머지 다섯 가지 모습은 보문시현의 변화신이다. 그 6관음(六觀音)의 역할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성관음(聖觀音): 아귀도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 번뇌 망상을 제거해 줌
- ② 천수관음(千手觀音): 지옥의 고통을 해탈케 하여 모든 원을 성취하게 한다.
- ③ 마두관음(馬頭觀音): 주로 축생들을 교화하여 이롭게 한다고 함
- ④ 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 아수라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보살
- ⑤ 준제관음(准提觀音): 중생계의 업을 소멸하고 항상 인류를 교화하는 보살
- ⑥ 여의륜관음(如意輪觀音): 주로 천상의 고통을 구제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에 따르면, 마음속으로 관음보살을 간절하게 염원하면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변하고 성난 파도가 잠잠해지며, 높은 산에서 떨어져도 공중에서 멈추게 된다고 한다. 또한 참수형을 받게 되었을 때에도 목을 치는 칼날이 부러지게 된다고 하는 등 관음보살은 갖가지 재앙으로부터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로 알려져 있다.

관음법회에서는 법사 만춘 스님을 모시고 기도를 올리고 법문도 들었다. 스님께서는 법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일상생활과 지친 마음속에서 불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 말씀하시며,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도울 일은 없는가를 늘 생각하고, 위기를 잘 이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며,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삼아 불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수행을 정진하시라."고 말씀하셨다.

제23장 상유품(象喻品)

▶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을

彼不能適 人所不至 唯自調者 能到調方
피부능적 인소부지 유자조자 능도조방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을
누구나 능히 갈 수는 없지만
다만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능히 그곳으로 갈 수 있느니

▶ 재수라는 이름의 코끼리는

如象名財守 猛害難禁制 繫絆不如食 而猶暴逸象
여상명재수 맹해난금제 계반불여식 이유폭일상

재수라는 이름의 코끼리는
역세고 사나워 견잡을 수가 없고
잡아 묶어 두면 주는 먹이도 먹지 않고
사납게 날뛰는 코끼리이네

▶ 나쁜 행에 빠져 있는 사람이

沒在惡行者 恒以貪自繫 其象不知厭 故數入胞胎
몰재악행자 항이탐자계 기상불지염 고수입포태

저 나쁜 행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항상 탐욕으로 스스로 결박함은
만족할 줄 모르는 코끼리 같아
그로 인해 자주 태(胎)에 들어가네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법회

- 서대문구청 봉축 점등법회 -



불기 2564년 5월 6일(음력 4월 14일) 오후 6시 서대문구청 광장에서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기원하는 봉축 점등법회가 열렸다.

서대문구청 사암연합회와 불심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점등법회는 백련사, 봉원사, 성용사, 옥천암, 조계종 주지협의회 후원하에 원만히 진행되었다. 점등법회에는 각 사찰을 대표한 대중 스님들과 서대문구청 문석진

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의원, 김영호 의원,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장 외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봉원사에서는 주지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회장 운봉 스님과 종회의장 지암 스님 외 대중 스님들이 참석하였다. 법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대문 구민의 참여 없이 최소한의 식순으로 거행되었다.

봉원사 교무 범수 스님의 사회로 시작된 점등법회는 삼귀의례에 이어 반야심경 봉독이 있었다. 이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비록 점등법회가 늦어졌으나 국내 확진자가 감소되는 시기에 열게되어 다행이며, 그간 많은 행사를 하지 못한 사찰 스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방역이 순조롭게 잘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오신날 축하드립니다.”고 하였다.

곧이어 점등식과 불우이웃돕기 공양미 전달식이 치러졌다. 다음으로 봉원사 주지 운봉 스님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기원문 낭독이 있었다. 기원문에서 주지 운봉 스님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인류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며,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병마와 싸우고 계신 환자분들은 빠른 쾌유가 있기를, 바이러스에 희생된 분들은 모든 고통을 여의고 극락왕생하시길 발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들이 무탈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어 부처님의 품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원하였다.

다음으로는 참석자 모두의 탑돌이(정근)가 있었으며, 사홍서원을 끝으로 법회는 원만히 봉행되었다.

※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기원문은 봉원사 홈페이지 <http://bongwonsa.or.kr>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KCDC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새로운 일상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든 것입니다

다시, 한마음으로 실천해 주세요!

#함께해요 #생활 속 거리 두기

개인방역 5대 기본 수칙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사보 후원금 ●

김순자 3만원(인공 스님)
이승환 1만원(인공 스님)
전준성 3만원(성담 스님)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전/생/이/야/기

본생경(자타카) 62

자타카(Jataka)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 알려졌고 그 후 구전되다가 문자로 기록되었으며 동서양으로 이어져 「이슈우화」와 「아라비안나이트」 그리고 우리나라 「삼국사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다. 판소리 「별주부전」으로 발전한 「토끼와 거북」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설화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인도를 비롯한 중국 등 동아시아에 전파된 것은 1세기부터 6세기로 보고 있다. 중국은 67년 축법란이란 분에서부터 285년 축법호라는 분의 생경(生經) 번역까지 5차례에 걸쳐 700여 편의 본생 설화가 한역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본생경(本生經), 일본에서는 본생담(本生譚), 중국에서는 본생주(本生注) 등으로 소개되고 있다.

수팻타 까마귀의 전생 이야기

옛날 범여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까마귀로 태어났다. 그는 성년이 되자 8만 까마귀들의 왕이 되어 그 이름을 수팻타라 했다. 그리고 그 왕비는 수팻사라 하고, 그 사제관은 수마카라고 했다.

수팻타는 8만 마리의 까마귀들을 데리고 바라나시 부근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수팻사를 데리고 먹이를 찾으러 나갔다가 바라나시 왕궁의 한 주방 위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때 요리사는 왕을 위해 갖가지 생선과 고기로 된 요리를 준비한 뒤 항아리 뚜껑을 열어 요리를 식히고 있었다.

수팻사는 그 요리 냄새를 맡고 임신한 여자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이식증(異食症)을 일으켰다. 그러나 수팻타는 그 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이튿날에야 수팻사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먹이를 찾으러 갑시다.”

수팻사는 수팻타의 말에 시큰둥했다. “당신 혼자 가십시오. 나는 이식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이식증인가?”

“나는 바라나시 왕의 요리가 먹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팻타는 아내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때 수마카가 와서 수팻타에게 말했다. “대왕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습니까?”

수팻타는 수마카에게 자기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대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기 이대로 계십시오. 제가 그 요리를 가져

오겠습니다.”

수마카는 일단 수팻타를 안심시키고 나서 까마귀들을 불러 모았다.

“지금 우리 왕비님이 이식증을 일으켜 바라나시 왕의 요리를 먹고 싶어한다. 그것을 먹지 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그 요리를 가져오도록 하자.”

수마카는 동료 까마귀들을 데리고 바라나시 성내로 들어갔다. 그는 까마귀들을 몇 부대로 나누어 주방 가까운 여러 곳을 지키게 한 뒤, 스스로 여덟 마리 까마귀들과 함께 주방 지붕 위에 앉아 왕의 요리를 운반할 때를 기다리면서 까마귀들에게 일러두었다.

“나는 요리를 운반할 때 그릇을 떨어뜨리리라. 그릇이 떨어질 때 내 목숨은 이미 없다. 너희들 중 네 명은 한 입씩 죽을 머금고, 또 네 명은 생선과 고기를 움켜잡고 돌아가 왕과 왕비에게 드려라. 그리고 만일 내가 어찌 되었느냐고 묻거든 뒤에 온다고 대답해 나오.”

요리사는 갖가지 음식을 마치고 천칭봉(天秤棒)으로 요리 항아리를 메고 왕궁으로 떠났다.

수마카는 다른 까마귀들에게 신호를 보낸 뒤 얼른 요리사의 가슴팍에 올라앉아 발톱으로 그를 때리고, 부리로 코끝을 쫓 뒤 두 발로 그의 얼굴을 덮었다.

바라나시의 왕은 식사를 기다리면서 방안을 왔다갔다 하다가 창문으로 그 까마귀의 소행을 보고 화가 나서 소리쳤다.

“요리사여, 항아리를 버리고 그 까마귀를 잡아라!”

요리사는 왕의 명령대로 항아리를 내던지고 까마귀를 움켜잡았다. 그러자 왕이 요리사에게 그 까마귀를 가지고 가까이 오라고 명했다.

그때를 틈타 까마귀들은 한껏 그 요리를 먹었다. 그리고 여덟 마리의 까마귀들은 수마카의 지시대로 요리를 가지고 돌아가 수팻타와 수팻사에게 올렸다. 수팻사는 그 요리를 먹자마자 이식증이 가라앉았다.

한편 요리사는 까마귀를 붙잡아 왕에게로 나아갔다. 왕은 요리사의 손에 붙잡혀 거의 죽을 상이 되어있는 까마귀에게 물었다.

“어이, 이놈 까마귀야.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요리사의 코를 쪼며 요리 그릇을 부수고... 끝내 목숨을 잃을 줄 몰랐느냐. 너는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까마귀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바라나시의 대왕님, 우리 왕은 바라나시 근방에 사는데, 저는 그 사제관입니다. 얼마전 수팻사라는 우리 왕비가 이식증을 일으켜 대왕님 요리를 먹고 싶어했습니다. 우리 왕은 왕비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느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걸고 여기 온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 요리를 왕비에게 보냈으므로 이미 저의 희망을 성취한 셈입니다.”

까마귀는 그런 짓을 하게 된 연유를 찬찬히 말한 뒤 다음 계승을 읊었다.

대왕님, 바라나시 성에
까마귀의 왕이 살고 있나니,
그 이름은 수팻타로서
8만 무리의 공양을 받고 있네.

그 왕비의 이름은 수팻사
아기 배어 생선을 먹고 싶어했나니,

왕의 주방의 갖가지 요리 되는
그 신선한 왕의 음식을.

그들을 위해 왕의 사자로
나는 여기까지 왔나니,
우리 왕에게 공양하기 위하여
그이의 코를 쪼기까지 했네.

바라나시 성의 왕은 이 계승을 듣고 까마귀 수마카에게 말했다.

“나는 인간들에게 실로 큰 영예를 주고 있지마는 내 친우로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식음(食飮)까지 주어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까마귀면서 내 왕을 위해 너의 목숨까지 버리려 든다. 참으로 훌륭하다. 너는 소리도 아름답고 품행도 바르다.”

바라나시 왕은 수마카의 덕행을 높이 치하하고 그의 목숨을 살려 주었다. 그뿐 아니라 새하얀 일산(日傘)을 주어 경의를 표했다.

수마카는 일산을 받고 바라나시 왕에게 경의를 표한 뒤 수팻타 왕의 덕을 이야기했다. 바라나시 왕은 수팻타 왕을 불러 설법을 듣고 자기 요리와 같은 식단표의 죽 요리를 주고, 다른 까마귀들에게도 날마다 1암마나의 쌀을 볶아 주었다.

※ 이식증(異食症, pica) : 흡수 가능한 영양분이 없는 물질, 예컨대 종이, 점토, 금속, 분필, 흙, 유리, 모래 따위를 먹는 증상이다. 사람은 물론이고 반려동물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달의 시

가난한 자의 노래

윤수천

가난도 잘만 길들이면
지낼 만하다네
매일 아침 눈길 주고 마음 주어
문지르고 닦으면
반질반질 윤까지 난다네
고려청자나 이조백자는 되지 못해도
그런대로 바라보고
지낼 만하다네

하늘이 더 푸르게 보인다면
나무의 숨소리도 더 잘 들리고
산의 울음소리도 더 맑게 들린다면

더욱이 고마운 것은
가난으로
웃을 기위 입으면
내 가까이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내가 그들 속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라네



윤수천/시인, 아동문학가

1974년 소년중앙 동화 '산마을 아이'로 데뷔. 한국 동화문학상 수상, 197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 당선으로 문단에 등단. 한국아동문학상, 방정환문학상, 한국동화문학상 수상. 저서 「행복한 지게」, 「엄마와 딸」, 「바람 부는 날의 풀」, 「웅천이는 단추 귀신」, 「인사 잘하고 웃기 잘하는 집」 등

“음식물 쓰레기 걱정 싹~”

음식물 바이오 소멸기 및 살균수 생성기



업소용 음식물소멸기



가정용 음식물소멸기



살균수 생성기 싹수

- 캐나다 밴쿠버 세계박람회 최우수 상품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 “녹색기술 인증기업” 선정
- 이노비즈 기업 선정, 정부 광고지원 대상 업체 선정

(주) 조은생활 문의 : 김순복(010-3182-3445)

| 재미있는 불교 전설 - 안변 석왕사(釋王寺)

이성계의 꿈



석왕사 전경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아직 장군 시절일 때다. 날로 부패해 가는 고려왕조를 탄식하던 그는 청운의 뜻을 품고 팔도강산을 두루 돌며 무예를 익히는가 하면 명산 대찰을 찾아 제불보살님의 가호를 빌었다.

그가 함경도 안변 땅에 머물던 어느 날 밤, 이성계는 잠으로 묘한 꿈을 몇 가지 꾸었다.

“거참 이상한 일이로구나. 아무리 생각해 도 알 수 없는 꿈을 하룻밤에 몇 가지 꾸다니...”

이튿날 새벽 눈을 뜬 이성계는 간밤 꿈 자리가 어쩐지 석연치 않아 하나하나 꿈을 되새기며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었다.

풀리지 않는 꿈 때문에 답답해 하던 그는 대장부 체통도 접어둔 채 그 마을에서 해몽을 잘한다는 노파를 찾아갔다.

“내 간밤에 하도 이상한 꿈을 꾸었기에 이렇게 찾아왔으니 해몽을 좀 부탁하오.”

이성계가 말하는 꿈 이야기를 묵묵히 다 들은 점쟁이 노파는 한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신중하게 말문을 열었다.

“대장부가 받은 꿈의 계시를 어찌 미천

한 아나미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서쪽으로 40리쯤 들어가면 설봉산이 있고 그 산허리 조그만 토굴에 신승이 한 분 살고 계십니다. 그 도인 스님은 토굴을 파고 공부하신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합니다. 그 스님께 가면 잘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성계는 그 길로 설봉산 도인 스님을 찾아갔다. 토굴에 당도하니 스님은 서정에 들어 있었다.

한참을 기다려 스님께 삼배를 올린 이성계는 찾아온 사연을 밝혔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구요? 거 어디 들어 봅시다.”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는데 마을의 모든 닭들이 일제히 울어대더니 집집마다에서 방아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꽃이 마치 비오듯 떨어져 내렸습니다. 다시 또 꿈은 이어져 저는 어느 집 헛간에 들어가서 서까래 세 개를 등에 짊어지고 나오다가 거울 깨지는 소리에 문득 꿈을 깨게 됐습니다. 무슨 불길한 징조는 아닌지요?”

“참으로 그런 꿈을 꾸었다면 함부로 말 설해선 안 될 꿈입니다.”

스님은 은밀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그 꿈은 아주 길몽입니다. 마을의 닭들이 일제히 울어댄 것은 「꼬끼오 꼬끼오」 한 것이니 이는 반드시 고귀한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며 [高貴位] 방아찹는 소리는 귀하게 될 것을 축하하는 의미입니다. 또 헛 공간에서 서까래 세 개를 가로졌으니 그 모양은 마치 임금 「왕(王)」 자와 같지 않습니까.”

스님의 말을 들은 이성계는 흥분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그는 어느새 상기된 얼굴에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스님, 그럼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깨진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스님은 말없이 시 한 수를 적어 내놓았다.

花落能成寶 鏡破豈無聲
화낙능성보 경파기무성

꽃이 떨어졌으니 열매가 맺힐 것이요, 거울이 깨졌으니 소리가 나지 않겠는가. 스님은 다시 이성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대 얼굴엔 군왕의 기상이 가득하오. 허나 아직 겁기(劫氣)가 다 벗어지지 못했소. 성현에게 기도를 올리고 공덕을 지어야 일이 성취될 것이요 앞으로 3년은 더 기다려야 할 터이니 그 동안 이곳에 절을 세우고 오백 나한을 모셔 기도를 잘 올리도록 하시오. 그리고 이 일은 나만 알고 비밀을 지킬 터이니, 장군도 꿈 이야기를 입밖에 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십시오.”

스님께 스승의 예를 올리고 물러난 이성계는 기도 올리는 간절할 마음으로 안변 땅에 절을 세우고는 후일 임금 왕 자를 해 석했다 하여 「석왕사」라 불렀다.

그 후 이성계는 오백 나한을 모시기 위해 석왕사 경내에 응진전을 건립했다.

때마침 함경도 길주에 있는 광적사가 병화로 폐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성계는 그 절에 방치된 대장경과 오백 나한상을 석왕사로 모셔 오기로 했다.

길주에서 원산포까지 배로 옮겼으나 원산서 석왕사까지는 이성계가 직접 무거운 돌나한님을 한 분씩 등에 업어 정성스럽게 모셨다. 이렇게 498상을 옮기고 마지막 두 분이 남게 되자 그는 조금 귀찮은 생각이 들었는지 두 분을 한꺼번에 옮겨 모셨다.

다음날 아침 기도를 드리고 나서 살펴보니 이게 웬일인가. 간밤에 분명히 오백 나한님을 다 모셨는데 맨 나중에 모셔온 존상 한 분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이성계는 놀라서 사방을 두루 찾았으나 보이지 않자 단념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그 존상이 나타날 줄이야.

“그대의 신심이 그렇게 여일(如一) :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음)치 못해서야 되겠는가? 한 분씩 업어 오시다가 나만 덧붙여 업어 가다니. 나는 그렇게 정성이 부족한 푸

대접을 받기가 싫네. 해서 묘향산 비로암에 와 있으니 그리 알게.”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이성계는 날이 밝는 즉시 묘향산 비로암으로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하였더니 과연 그곳에 나한상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었다.

곧바로 달려간 이성계는 정중한 자세로 참회한 후 다시 그 나한님을 모셔왔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그 나한님은 또 없어지고 말았다.

이성계는 할 수 없이 그 나한존상의 자리에 명패만을 모셨다. 석왕사 응진전에 나한님이 오백 명에서 한 분 모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라고 한다.

“큰일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러준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긴 이성계는 천일 간 지극 정성으로 기도를 올려 마침내 역사의 새 장을 열게 되었다. 조선을 건국하고 왕위에 오른 이성계는 제일 먼저 신승을 찾아 왕사(王師 : 임금의 스승)로 모시니 그 스님이 조선조 오백 년 기반을 닦는 데 큰 도움을 준 무학대사였다.

이성계는 등극 후 명하여 석왕사를 도에서 으뜸가는 거찰로 만들었다.

또한 1401년(태종 1)에는 이곳에 와서 동구(洞口)에는 소나무를, 뜰에는 배나무를 심었다. 그 뒤 왕명에 의하여 이곳의 소나무를 베는 것을 금하였고, 좋은 배를 수확하여 임금에게 바치게 하였다.

석왕사

북한의 강원도 안변군 설봉산(雪峯山)에 있는 고려후기에 창건된 사찰이다.

조선 시대와 일제 강점기 동안에는 함경남도 안변군 석왕사면 사기리(沙器里)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1946년 안변이 강원도로 편입되고 고산군이 안변군에서 분리되는 등 행정구역 변동으로 강원도 고산군 고산리에 속하게 되었다.

조선의 시조와 관계가 깊은 절이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는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건물 수십 동이 세워지는 등 번성했으며, 일제 강점기에도 31본산의 하나로 인근 귀주사와 함께 함경남도 지역의 본산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한국 전쟁 때 주요 건물이 대부분 사라지고 불이문(不二門) 등 일부만 남게 되었다. 2008년에는 복원 계획이 발표된 후 2019년 대웅전, 신검당, 응진전을 비롯한 건물들이 원상 복구되었다고 한다.



석왕사 대웅전

사진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숲속 한방랜드 24시 숲가마 사우나

도심에서 즐기는 숲가마 찜질 여행
당신의 생활 속 편안한 휴식을 드립니다.

서대문구 봉원동 51 (시내버스 7024번 종점)
전화 : 02)365-2700~1

조상의 풍류와 낭만을 따라서...정자(亭子) 기행 62



관수루(觀水樓)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 422호 / 경남 거창군

관수루(觀水樓)

자연 암반 위에 휘어진 나무기둥으로 세워진 아름다운 누각

관수루는 정자가 아닌 서원의 문루로 경남 거창군의 구연서원에 있는 조선시대의 건축물이다. 2005년 1월 13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 422호 지정되었다.

창건 시기는 1740년(영조 16)이며 자연 암반을 이용하여 틀어진 재목을 하부 기둥으로 사용하는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형태가 매우 아름답다.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누각 건물로 암반 사이에 조성된 기단 위에 초석으로 자연석을 이용해 기둥을 세웠다. 누각의 하부 정면에 출입문을 달았고 나머지 공간은 모두 개방되어 있다. 네 개의 모퉁이에는 적당한 높이 조절을 위해 활주를 세웠다. 누의 상층 바닥은 우물마루로 깔았고 마루 주변으로 난간을 둘렀다.

구연서원은 원래 조선 전기의 학자 요수(樂水) 신권(愼權, 1501~1573)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구주서당(龜州書堂) 자리였는데, 1694년(숙종 20)에 그의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관수루는 구연서원을 지은 지 한참 후(1740년)에야 건축되었다.

누 위의 마루는 주변의 경관을 감상하며 시회를 열거나 강학을 하는 곳이다. 또한 휴식을 하는 장소로도 이용이 되었다. '관수'는 '맹자'의 '진심장구' 상편의

觀水有術 (관수유술)
必觀其瀾 (필관기란)
流水之爲物也 (유수지위물야)
不盈科不行 (불영과불행)

물을 보는데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흐름을 봐야 한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다음으로 흐르지 않는다

에서 가져왔다. '관수', '관란', '영과'와 같은 현판 이름은 모두 여기서 나왔다고 한다. 맹자의 '관수'는 물의 흐름, 즉 맥락을 읽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군자가 도(道)에 뜻을 둔다고 하는 것은 기초적 실력을 완비하여 문채(文彩)를 이루지 아니 하면 통달하여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을 뜻한다. 웅덩이가 있으면 반드시 그 웅덩이를 채우고 가야 한다. 건너 뛴 생각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또한 어찌 인생을 살면서 물살에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가 인생 풍파를 겪기 마련인 것을……

관수루

구연의 근원은 사수 물가에 다았고
출렁이는 맑은 물결 묘정을 둘렀네
뒤섞여 이어와도 근본 일은 줄 알겠고
유유히 지나가니 스스로 멈추지 않네
구덩이를 채웠다고 어찌 천급이 지나기를 꺼릴까
용감히 나아가면 마침내 사해에 이를 터이니
관수루라 이름한 것 참으로 의미 있어
유형을 보는 곳에서 무형을 깨닫노라

- 황고 신수이 -

글/사진 선암 석인철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 봉원사 주차장 이용안내 ☺

봉원사를 찾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봉원사를 방문하시는 신도분들께서는
종무소나 각 화주스님께 문의하시어 무료주차증을 발급받으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증이 없는 경우에는 요금(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백원)이 발생합니다. 주차장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일반요금 : 기본 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00원

■ 무료주차 : 주차증 제시

■ 문 의 : 종무소(02-392-3007~8)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삼천불전 보수·정비 불사 계획도



◆ 모연부재목(시주내용) ◆

단위:만원

부재명	모연금	부재명	모연금
추녀	500	서까래	20
사래	200	개판	20
도리	100	부연	10
장여	50	기와(대와)	2

◆ 시주문의 ◆

종무소 : 02-392-3007~3008

삼천불전(三千佛殿) 보수·정비 불사

부처님 말씀에 '불사(佛事)는 복전(福田)이라', 모든 중생에게 복에 종자를 심는 큰 터전이라 하셨습니다. 천년고찰 봉원사에서는 삼천불전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불사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장애를 모두 극복하여 보수·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불교 전통문화 보전과 수행환경 개선을 위한 불사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큰 공덕을 짓는 의미있는 불사에 많은 신도님들 동참하시어 소중한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및 각 화주스님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 봉원사 자원봉사단 단원모집 안내 ✧

귀의 삼보하옵고, 봉원사 도량내 기와불사와 시주접수처 업무 및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아울러 봉원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군부대, 소년원 등 사회 각지에 부처님의 자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종교를 초월하여 손길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파하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거나 도움을 주실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